

치 사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선구적인 근대 불교학자로 평가받는 이능화 거사가 지난 20세기 초에 펴낸 조선불교통사를 종립 동국대학교의 후학들이 92년 만에 알기 쉽게 한글로 완역(完譯)하여 출간한 법보불사에 대해 우리 종도들이 함께 축하하고 회향하는 희유한 경찬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학의 태두이시자
종단을 대표하는 학승으로서 동국대
학교 총장과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지관 큰스님께서 이 법회를 증명하는
경찬법문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조계사
큰법당에 모인 모든 불자들이 비로자나
광명으로 가득 찬 법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관 큰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들께서
한글대장경 번역사업과 한국불교전서
편찬사업의 큰 뜻을 세워 종립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활발하게 추진해 온**

공덕을 우리 종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을 출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역주사업에 정진해 준 역주편찬위원들과 출판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의 가장 높은 지혜가 담긴 불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과 석굴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간화선의 수행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여 그 맥을 잇고 있는 우리 불교는 이제 전통의 계승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라는 화두를 풀어야 합니다.

이제 역경사업 현대화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불전(佛典) 편찬사업으로 전통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세계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열린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종단과 종립학교가 함께 모색하고 풀어야 할 한국불교의 숙원과제입니다.

앞으로 종립 동국대학교가 적극 앞장서서 불교계에 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한국불교학 진흥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려 스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제15대 종회의원 스님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동참하셔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염원해
주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